

KIA 스타들 “고교생들 보며 초심 다졌다”

김선빈·황대인·김석환·한준수

동성고 전훈지 고흥서 시즌 준비

후배들에 포지션별 기술 전수

실의 타격·체력 훈련·축구대결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황대인·김석환·한준수가 동성고 전지훈련지에서 '초심'을 다졌다.

광주 동성고 야구부는 고흥 거금야구장에 동계

캠프를 차리고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추어 선수들의 열정이 넘치는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다.

동성고를 졸업한 외야수 김석환, 포수 한준수가 동문인 두산 내야수 지강혁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후배들의 전지훈련지를 찾았다. 이들과 겨울 훈련을 함께했던 화순고 출신의 내야수 김선빈, 경기고를 졸업한 내야수 황대인도 동행해 새 시즌을 준비했다.

지난 16일 고흥을 찾은 이들은 동성고 선수들과 기술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겸한 축구 대결도 했다.

동성고 선수들에게는 프로 선배들의 훈련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였다. 정교하게 또 파워 넘치게 공을 때려내는 프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며 감탄하던 선수들은 직접 노하우를 배울 기회도 얻었다.

마침 포수, 내야수, 외야수를 맡고 있는 KIA 선수들은 포지션별로 '특별 코치'로 나서 동성고 선수들에게 수비 기본기도 알려줬다.

프로의 기술을 배운 후배들, 프로 선배들에게도 배우는 시간이 됐다. 이들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간절함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즌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만행'으로 동성고의 특별 손님이 된 김선빈은 배팅볼 투수를 자처해 후배들을 응원하고, 올 시즌 준비에도 속도를 냈다.

김선빈은 "같이 시즌 준비했던 KIA 후배들과 스프링캠프에 앞서 훈련을 하기 위해 고흥을 찾았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했다"며 "오랜만에 다시 실외에서 타격하니까 좋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식단 관리도 하고 준비를 잘했다. 건강하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황대인에게도 '처음'의 마음과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황대인은 "활기가 넘친다. 확실히 다르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다시 예전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밖에서 훈련하면서 평고도 받고, 방망이도 하나씩 실전 준비가 된 것 같다"며 "지난해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후회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고 있다"고 2026 시즌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

올해로 프로 10년 차가 된 김석환은 "시즌 준비하려고 고흥을 찾았다. 밖에서 따뜻하게 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실외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감독님, 코치님들이 잘 챙겨주신다. 단체로 모여서 운동하면 시즌 준비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동성고 후배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후배들도 잘되면 좋겠고, 나도 잘해서 후배들 챙겨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사령탑이었던 김재덕 감독과 함께 김동휘 코치는 서석초 시절부터 김석환을 지도한 오랜 인연이다.

한준수는 "후배들도 있고 선빈이 형이랑 선배들도 함께 훈련하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내에서 훈련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게 다르다. 밖에서 실전처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찾았는데 좋았다"며 "캠핑에서 잘 준비해서 2025년도에 못 보여드렸던 것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두산 지강혁도 "형들과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 또 선배들이 잘해야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다"며 KIA 선수들과 함께한 동성고 캠프 성과를 이야기했다.

/고흥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선빈(오른쪽)과 한준수가 고흥 거금야구장에서 동성고 선수들에게 배팅볼을 던져주고 있다.

〈동성고 김동휘 코치 제공〉

김하성·송성문 WBC 불참…내야 공백 어찌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코리아 박리거'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합류할 것이 유력했던 김하성(30·에틀랜드 브레이브스)과 송성문(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나란히 대회에 불참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19일 두 선수가 부상 때문에 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발표했다. 에틀랜드 구단 발표에 따르면 김하성은 지난주 한국에서 방파길에 미끄러져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을 다쳤고, 힙졸 파열로 수술받아 회복에 4~5개월이 걸린다.

김하성은 2017년 대회를 통해 WBC에 처음 출전했고, 직전 대회인 2023년 대회에도 나섰던

국가대표 주전 유력수다.

김하성이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에 낙마하면서 대표팀은 새로운 주전 유력수를 찾아야 할 처지가 됐다.

송성문의 이탈 역시 뼈아픈 손실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송성문은 WBC 1차 캠프인 사이판에 합류하는 대신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영구리(내북사군) 근육을 다쳐 회복까지 최소 4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송성문은 대표팀에서 2루와 3루, 1루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내야수다.

/연합뉴스

‘실책 발목’ 광주도시공사, 삼척시청에 져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21-27…리그 6위

광주도시공사가 초반 실책에 발목을 잡히며 삼척시청에 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제3매치에서 삼척시청에 21-27(9-16, 12-11)으로 패했다.

이로써 도시공사는 1승2패(승점 2)로 6위에 머물렀고, 삼척시청은 2승1패(승점 4)로 3위에 올라섰다.

경기 초반은 팽팽했다.

양 팀은 전반 1분, 빠르게 첫 골을 주고받으며 출발했지만 도시공사의 슈트 미스가 나오자 삼척이 전지연·이연경의 연속 득점으로 4-2로 리드를 잡았다.

도시공사는 동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지만 삼척 골키퍼 박세영의 잇따른 선방에 막혔고, 속공을 허용하면서 점수 차가 벌어졌다.

실책까지 겹치면서 삼척에 4실점을 허용해 5-10이 됐고, 29분에 나온 연지현의 6m 드로 득점에도 전반전은 9-16으로 크게 뒤진 채 마무리됐다.

후반 들어서 도시공사의 반격이 이뤄졌다. 도시공사는 연지현을 활용한 피벗 플레이로 추격에 나서며 14-18까지 격차를 좁혔다.



광주도시공사 이효진이 경기 중 동료들에게 수비 위치를 지시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도시공사는 18-21, 3점 차까지 따라붙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7m 드로를 연달아 놓쳐 추격의 흐름이 끊겼다. 승부차에서의 실책이 이어졌고, 삼척 김소연·김보은·김민서에게 연달아 골을 내주면서 점수는 20-26이 됐다.

이후 1골씩 주고받은 끝에 경기는 삼척의 27-21 승리로 마무리됐다.

도시공사는 김지현과 연지현이 6골씩을 넣었고, 골키퍼 이민지가 7세이브로 버텼으나 전반에 벌어진 점수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삼척은 김보은이 5골, 김민서·이연경·허유진이 4골씩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다. 골키퍼 박세영은 15세이브(방어율 41.67%)를 기록하며 경기 MVP로 선정됐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에서 부산시설공단과 시즌 첫 홈경기를 갖는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올해는 승격” 전남, 첫 승 제물은 경남

2월 28일 K리그2 시즌 개막

17개 팀, 272경기 승격 경쟁

박동혁호, 3월 1일 원정 경기

전남드래곤즈가 경남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승격 도전을 시작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6시즌 K리그2 정규라운드 1-34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김해, 용인, 파주가 새로 가세하면서 올 시즌 17개 팀으로 K리그2가 운영된다.

홀수팀 체제에 따라 '휴식일'일 생기면서 각 팀은 32경기씩 총 272경기를 소화한다.

K리그2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은 2월 28일 오후 2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해와 안산의 경기다. 지난해 K3리그 '우승팀' 김해는 안산을 상대로 프로 무대 도전을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새 사령탑 이정호 감독을 앞세운 수원이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해 승격 문턱에서 눈물을 삼켰던 수원은 '이정호호'로 K리그1 재진입을 노린다. 서울이랜드의 김도균 감독은 난적을 상대로 3번째 시즌을 연다.

이어 3월 1일 오후 2시 용인과 천안이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시즌 첫승을 놓고 대결한다.

K리그2에 도전장을 내민 용인은 최윤겸 감독의 지휘 아래 신진호, 임재민, 석현준 등을 영입하면서 탄탄한 스쿼드를 갖췄다. 박진섭 감독으로 개편한 천안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같은 시각 대구i뱅크PARK에서는 대구와 화

2026 KLEAGUE 2 FIXTURES			
OPENING WEEK			
2.28 (토)	 	14:00	김해종합
2.28 (토)	 	16:30	수원월드컵
3.01 (일)	 	14:00	용인미르
3.01 (일)	 	14:00	대구i뱅크PARK
3.01 (일)	 	14:00	청주종합
3.01 (일)	 	16:30	창원축구센터
3.02 (월)	 	14:00	이순신종합
3.02 (월)	 	16:30	구덕운동장

* 경기 일정은 구단사정, 전지훈련으로 인한 경기장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K리그1 최하위로 강등 운명을 맞은 대구는 여전히 팀을 지키고 있는 세진야와 에드가를 앞세워 승격을 노린다.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은 신생팀 돌풍을 이어 더 높은 순위를 노린다.

같은 시각 청주종합운동장에서는 충북청주와 수원FC의 대결이 전개된다.

충북청주는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 루이 쿤타 신임 감독을 통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수원FC는 유기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로 승격을 노린다.

박동혁호로 새 출발한 전남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을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경남도 신임 배성재 감독으로 새 판을 짜고 변화의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3월 2일 오후 2시에는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충남아산과 파주의 개막전이 열린다.

충남아산은 새 사령탑 임관식 감독을 앞세워 조직력있는 축구를 준비하고 있다. K리그2에 첫 발을 내딛는 파주는 외국인 사령탑 제라드 누스 감독으로 프로 첫 시즌에 나선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부산구덕운동장에서는 부산과 성남의 개막전이 열린다.

부산은 승격을 위해 베테랑 김진혁과 김민혁 등을 통해 스쿼드를 강화했고, 전경준 감독 부임 이후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성남은 기세를 이어 승격에 도전한다.

'기회의 시즌'인 만큼 첫 경기부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내년 시즌 K리그1이 12개팀에서 14개팀으로 확대되고, 김천상무가 연고지 협약 종료에 따라 자동 강등되면서 최대 4개팀이 승격 자격을 얻는다.

정규라운드가 끝난 뒤 1·2위 팀은 자동 승격된다. 3~6위 팀은 플레이오프의 최종 승자가 되면 K리그1 티켓을 받게 된다.

3위와 6위, 4위와 5위가 맞붙는 준플레이오프는 12월 3일 진행된다. 각 경기 승자끼리 펼치는 플레이오프는 12월 6일에 열린다.

K리그1 김천상무의 성적에 따라 플레이오프에서 진 팀은 '패자 부활전'을 치르게 된다.

자동 강등되는 김천상무가 K리그1 최하위가 아닐 경우, 플레이오프 패자는 K리그1 최하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갖는다. 김천상무가 K리그1 최하위를 기록하면 승강플레이오프는 진행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